

2년만에 만난 친구들 “새 출발 하자”



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 가다

투수 문경찬·한승혁

상무 동반입대 무산으로 이별
부담감 늘어난 예비역 문경찬
실력 발휘 못해 아쉬운 한승혁
“1군서 좋은 모습 보이고파”

2년 전 엇갈렸던 운명의 두 친구가 새 출발의 2018시즌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한승혁과 문경찬에게 오키나와 마무리캠프는 ‘재회의 캠프’다.

지난 2015시즌이 끝난 뒤 대졸 신인이었던 문경찬은 상무에 입대하면서 잠시 팀을 떠나있었다. 이에 같이 상무에 지원했던 한승혁은 팔꿈치 수술 이력으로 탈락하면서 두 친구의 동반 입대가 무산됐다.

그리고 문경찬이 지난 가을 군 복무를 마치고 오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마무리캠프에서 나란히 훈련하고 있다.

두 친구에게 이번 캠프는 2018시즌 준비를 위한 새 출발의 캠프이기도 하다.

특히 한승혁에게는 아쉬움의 올 시즌을 털어내고 도약을 위해 이를 악물어야 하는 시간이다.

문경찬이 상무로 떠나있는 동안 한승혁은 최고의 기대주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가장 큰 실망을 준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한승혁은 지난 시즌 막바지에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KIA 불펜 한 자리를 책임질 선수로 기대를 모았다. 한승혁의 기세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 캠프를 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투수 문경찬(왼쪽)과 한승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는 스프링캠프를 이어 지난 시범경기까지 계속됐다. 하지만 본무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위기에 흔들린 한승혁은 좀처럼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쓸쓸하게 2017시즌을 마감해야 했다.

문경찬도 캠프를 보내는 마음이 가볍지 않은 않다. 군 복무를 마치고 왔다는 홀가분함과 함께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문경찬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

‘새 출발’이라는 목표로 마무리캠프를 달려온 이들은 코칭 스태프에게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다.

한승혁은 “올 시즌 나에게도 팀에게도 중요한 해였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났고, 출발이 좋지 못하면 흔들렸다. 욕심과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많은 분을 실망시켰다.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고, 후회되는 순간도 많다”며

이번 캠프에서 변화구 연습도 많이 했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올 시즌을 꿈꿔보고 있다. 내년 시즌은 웃으면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찬은 “팀이 우승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빨리 돌아가고 싶었다. 1군에서 선수

들이 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게 힘들었다. 떠나있어 보니까 1군 무대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알게 됐다. 상무가 잘하는 팀이라서 성적부담 없이 편하게 경기를 하고 경험을 쌓았다. 어떤 자리가든 1군에서 역할을 하는 게 우선 목표다”고 말했다.

또 ‘(한)승혁이와는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라며 농담을 한 문경찬은 “동기들이 많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경쟁도 하고 서로 의지도 하고 좋은 것 같다. 같이 내년 시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선수들 내·외적으로 성장”

마무리 캠프 지휘 정회열 퓨처스 감독

“KIA 선수들 기량 향상됐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와 의지도 달라졌다.” KIA 타이거즈의 정회열 퓨처스 감독이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 대해 ‘내·외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KIA는 지난 3일 일본 오키나와에 캠프를 차리고 올 시즌을 정리하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퓨처스 선수단 위주로 구성된 이번 캠프에는 ‘우승 포수’ 김민식도 참가해 구슬땀을 흘려왔다. 마무리 캠프 선수단은 오는 30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훈련을 지휘한 정 감독은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교정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웠는데 눈에 띄게 향상됐다. (삼성과) 연습경기를 한 번 했다. 한 차례 더 예정됐던 경기를 하지 못했다.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의 기량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아쉽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또 “이런 훈련에서 개인의 기량 향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는 자세와 의지나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했다”며 “그런 부



분은 평생 가는 것이다. 선수들이 믿고 잘 따라줬다”고 언급했다. 캠프를 자처한 김민식은 후배들에게 좋은 동기 부여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감독은 “김민식이 와서 훈련을 잘 소화했다. 올 시즌 고생했고 주전 포수로 뛴 선수인데 애들한테는 좋은 자극이 됐을 것이다. 어린 후배들에게 모범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퓨처스 선수단은 올 시즌 ‘V11’을 위해 해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또 다른 우승 동력이다. 이들은 내년 시즌 주인공을 꿈꾸며 이번 캠프를 보냈다.

정 감독은 “이곳에서 고생한 선수 중에서 내년 시즌 1군에서 활약할 선수들이 있다. 특히 정용운과 이민우는 5년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세대교체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육성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캠프의 성과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KIA 양현종, 은퇴선수 선정 ‘최고의 선수상’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이 직접 선정한 ‘2017 최고의 선수상’에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선정됐다.

(사)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이하 한은회·회장 이순철)가 27일 “2017 최고의 선수상”에 양현종을 선정하고, ‘레전드 특별상’을 신설해 한국 야구발전과 흥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22년간의 현역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승엽(전 삼성 라이온즈)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2017 최고의 선수상’ 주인공이 된 양현종은 22년 만의 토종 선발 20승을 달성하며 팀을 8년 만의 KBO리그 우승으로 이끌면서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선례를 받았다.

‘최고의 타자상’은 홈런, OPS 부분 1위에 오른 최정(SK 와이번스), ‘최고의 투수상’은 37세이브로 소속팀의 뒷문을 굳건히 책임진 손승락(롯데 자이언츠)이 받는다. 179안타로 역대 KBO리그

신인 최다안타 신기록을 갈아치운 이정후(넥센 히어로즈)는 ‘최고의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은회는 또 꾸준히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온 신봉기(롯데 자이언츠)에게는 선행상을 수여하고, 한국야구계의 대선배로서 한국야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어우홍 야구 원로와 숨은 곳에서 한국야구 발전을 위해 맘 흘리고 있는 최항남 감독(금보발전학교)에게 ‘공로패’를 전달한다.

한은회 이순철 회장은 “전체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마음을 담아 2017년 올해도 한 해 동안 한국야구를 위해 힘써 온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본 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12월 7일 오후 12시 서울 양재동 L-타워 7층 그랜드 홀에서 개최되는 ‘2017 레전드 야구존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을 통해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화순 출신 임애지 복싱 역사 새로 썼다



한국 여자복싱의 샛별 임애지(전남과학기술·왼쪽)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인도 구와하티에서 펼쳐진 세계여자유스복싱선수권 결승에서 빅토리아 카를로(이탈리아)를 4-1 판정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첫 출전 세계여자유스복싱선수권서 한국 첫 금메달

한국 여자 복싱의 샛별 임애지(전남기술과학고)가 세계여자유스복싱선수권에서 한국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임애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인도 구와하티에서 끝난 대회 -60kg급 결승전

에서 빅토리아 카를로(이탈리아)를 4-1 판정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복싱 종목에서 세계대회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애지는 국제대회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

임애지는 앞서 열린 32강전에서 개최국 인도의 반탈하리아트풀에게 3-2로 판정승을 한데 이어 16강전에는 아슬라한 세진(불가리아)을 4-1로 제압하며 8강에 진출했다.

다이즈 다이아나(미국)에게 5-0 판정

승을 거둔 8강전 이후 임애지는 준결승에서 호주의 부트엘라에 5-0 판정승, 결승전에는 신체조건과 파워가 월등한 카를로를 맞아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으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쳐 승리를 일궈냈다.

임애지를 비롯한 한국 선수단은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병호 2년만에 국내 컴백

미네소타와 계약 해지
넥센과 연봉 15억 계약



플 A팀인 로체스터 레드윙스에서 활약했다.

마이네리그에서 이번 시즌을 마친 박병호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미시 된다.

넥센 구단은 27일 “한국에 돌아오는 박병호와 연봉 15억원에 2018시즌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15시즌 종료 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박병호는 2016시즌부터 2017시즌까지 2시즌 동안 미네소타 트윈스 소속으로 뛰었다. 올 시즌에는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트리

국내에 남아 훈련을 소화하며 메이저리그 제도전 의지를 보였지만, 최근 고심 끝에 KBO리그로 복귀를 결정했다.

KBO리그로 복귀를 결정한 박병호는 미네소타 트윈스 측에 2019시즌까지 보장된 계약 내용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미네소타 트윈스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복귀 절차가 이루어졌다. /연합뉴스

서지열 광주여자핸드볼 감독 선임

광주 여자핸드볼선수단의 사령탑에 서지열(사진) 전 대한핸드볼협회 상임심판이 선임됐다.

서지열 감독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조선대학교(체육대학)를 졸업한 지역 핸드볼 경기인이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처음 핸드볼공을 잡게 된 그는 조대부중, 조대부고, 조선대를 거쳐 국군체육부대 등 15년 간 선수생활을 해왔다.

고등학교 때 주니어대표를 하며 처음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고, 국군체육부대 시절에는 국가대표로서 일본컵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이후 무안복중, 해제중, 조대부고, 무안고 등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며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대회에 출전하며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서 감독은 “지금까지의 지도력을 최대한 발휘해 고향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팀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살아가는 팀을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